

목 차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해외연수 -
공무국외 출장 귀국보고서
[2013.8.5(월) ~ 8.12(월)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1. 방문개요	1
2. 참석자 명단	2
3. 연수 세부일정	3
4. 주요 활동사항	4
I. 러시아(모스크바)	5
II.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31
III. 연수결과 및 시사점	43
IV. 주요 사진	50
□ 참고 자료	51

1 방 문 개 요

☐ 목 적

- 2013년도 하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 해외도시 지방의회 운영실태,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기법, 신도심 개발정책 등의 비교시찰을 통해 전국 광역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 간 : 2013. 8. 5(월) ~ 8. 12(월) / (6박 8일)

☐ 국가 및 도시 : 러시아(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참석 인원 : 총 19명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 13명

※ 불참: 인천, 경기, 전북, 경북

○ 전국시·도의회수행공무원 : 6명(운영전문위원실)

☐ 주 관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주요 활동

- '13년도 제1차 및 제2차 임사회 개최
- 해외도시의 지방의회운영 현황 청취 및 정보 상호 교환 등 우호증진
-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기법, 신도심 개발 정책 추진실태 등 비교시찰

2 참석자 명단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13명)

연번	구분	참 석 자		비 고
		성 명	영문이름	
1	서 울	이 창 섭	LEE CHANG SUB	단장
2	부 산	김 선 길	KIM SUN KIL	
3	대 구	박 상 태	PARK SANG TAE	
4	광 주	조 오 섭	JO O SEOP	
5	대 전	김 경 시	KIM GOUNG SEE	
6	울 산	윤 시 철	YOON SI CHEOL	
7	세 종	김 정 봉	KIM JUNG BONG	
8	강 원	김 동 일	KIM DONG IL	
9	충 북	김 재 종	KIM JAE JONG	
10	충 남	유 병 국	RYU BYONG KUK	
11	전 남	윤 시 석	YOON SI SEOK	
12	경 남	정 재 환	JUNG JAE HWAN	
13	제 주	안 창 남	AN CHANG NAM	

☐ 전국시·도의회 수행공무원(6명)

연번	구분	참 석 자		비 고
		성 명	영문이름	
1	서 울	김 석 기	KIM SEOK KEE	
2	서 울	박 순 중	PARK SUN JONG	
3	대 구	신 기 인	SIN KI IN	
4	세 종	변 영 호	BYUN YOUNG HO	
5	강 원	임 계 선	LIM GYEA SEON	
6	제 주	강 경 남	KANG KYUNG NAM	

3 연수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주 요 일 정
제1일차 8.5(월)	인 천 → 모스크바	항 공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모스크바공항 도착
제2일차 8.6(화)	모스크바	전용차량	· 제1차 임시회(주요 사업계획 추진성과 평가) · Rosinnui Ostrov National Park 현장시찰
제3일차 8.7(수)	모스크바	전용차량	· 모스크바시 의회 및 메트로 현장시찰 - 시 및 의회 주요현황 청취, 정보교환 - 신(新) 모스크바 건설계획 청취 및 비교시찰
제4일차 8.8(목)	모스크바 → 타슈켄트	전용차량 항 공	· 문화체험 - 푸시킨 문화박물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등 · 모스크바 공항 출발
제5일차 8.9(금)	타슈켄트	전용차량	· 타슈켄트 공항 도착 및 휴식 · 아리랑 요양원 방문 및 봉사활동
제6일차 8.10(토)	타슈켄트	전용차량	· 제2차 임시회(하반기 주요 사업추진계획 논의) · 실크로드 중심지 사마르칸트 현장시찰
제7일차 8.11(일)	타슈켄트	전용차량 항 공	· 문화체험 - 김병화 박물관, 침간산 및 차르박 호수 등 · 타슈켄트 공항 출발
제8일차 8.12(월)	타슈켄트 → 인 천	항 공	·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의회 방문은 의회내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서면질의/답변으로 대체 함.

4 주요 활동사항

I. 러시아(모스크바)

1.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2. Rosinnui Ostrov Natoinal Park 현장시찰
3. 러시아(모스크바) 의회 방문
4. 모스크바 메트로(지하철) 현장시찰
5. 기타 문화체험
○ 푸시킨박물관, 붉은광장,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II.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2.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의회방문 : 서면질의 및 답변
3. 아리랑 요양원 방문 및 봉사활동
4. 김병화 농장 및 박물관 방문
5. 실크로드 중심지 : 사마르칸트 현장시찰
6. 기타 문화체험
○ 침간산 및 차르박 호수 등

III. 연수결과 및 시사점

IV. 주요 사진

<참고 자료>

I. 러시아(모스크바)

1.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 일 시 : 2013. 8. 6(화)

□ 장 소 : 한식당(신라)

□ 참 석 자 : 총 19명

○ 운영위원장 : 13명

○ 관계공무원 : 6명

□ 주요내용 : 제6기 후반기 협의회 개최 성과와 반성 토론

○ 정기회 개최 결과 : 총 9회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1차 (9.7~8) 서울	서울	1. 임원선출의 건	○ 회장(1명) : 이창섭(서울) ○ 부회장(4명) : 김동일(강원), 김경시(대전) 박상태(대구), 안창남(제주) ○ 감사(2명) : 박병훈(경북), 김재중(충북) ○ 사무총장(1명) : 윤시석(전남) ○ 정책위원장(1명) : 정재환(경남)
	서울	2. 차기 회의개최 장소 선정의 건	○ 대구광역시의회 (2012. 10월중 개최 예정)
	서울	3.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의 건 : 원안 가결	○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대행은 부회장이 하되,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 10조제2항) ○ 정책위원장은 협의회 현안문제 발굴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직 무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 임원의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또는 그 밖의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함(안 제10조의2) ○ 협의회 연회비를 상·하반기 오백만원 연 간 일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4조 제5항) ※ 시행일 : 2012. 9. 7.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2차 (10.17~18) 대구	제주	1.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제주	2. 예산서 제출기한 변경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대구	3.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회장	4. 제3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 (2012. 11월중 예정)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3차 (11.15~16) 전북	서울	1.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전북	2.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 수정 가결(자구 수정)
	회장	3. 제4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3. 2월중 예정)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4차 (2.13~14) 제주	충북	1.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충북	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충북	3.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제주	4. 지방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의장 인사권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회장	5. 2013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수정 가결
	회장	6. 제5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경기도의회 (2013. 3월중 예정)

※ '13.2.14~15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개최(제주 롯데호텔)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5차 (3.19~20) 경기	경기	1.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경기	2. 지방재정 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회장	3. 제6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충청남도의회 (2013. 4. 30 예정)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6차 (4.30~5.1) 충남	제 주	1.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방안 지시 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부 산	2. 기관위임사무 폐지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충 남	3. 지방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방안 개선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충 남	4. 지방의회 의원 공공요금(우편요금) 지원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전 북	5. 향소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회장	6.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 토론회 개최의 건	○ 원안 가결
	회장	7. 제7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충청북도의회 【'13.5.20(월)】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7차 (5.20~21) 충북	충북	1. 2013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비 부 족예산 지원 건의의 건	○ 원안 가결
	회장	2. 제6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부산광역시의회 (2013. 6. 18 예정)

※ '13. 6. 5 :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8차 (6.19~20) 부산	부산	1.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부산	2.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 제한 철폐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회장	3. 제9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강원도의회 【'13.7.25 예정】

일시/장소	구분	안 건	처리 결과
제9차 (7.25~26) 강원	부산	1.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부산	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 지속적인 투자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전북	3.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	○ 원안 가결
	회장	4 제10차 정기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 전라남도의회 【'13.9.25 예정】

○ 주요 논의사항

- 총 9차례에 걸쳐 2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의장협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답변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전행정부)
- 정기회 부의안건이 과거와 중복되는 측면이 일부 있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향후 새로운 제도 개선 과제 적극적으로 발굴 필요
-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 합동연찬회('13.2월), 정책토론회('13.6월) 등을 개최하여 지방자치 전문가와의 유대관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 측면은 있으나,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화의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 안전행정부에서 2개의 사항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될 때까지는 관망할 필요가 있음. 다만, 향후 협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활동 필요
- 2013년 하반기 협의회 중점 추진사업에 관하여는 차기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Rosinnui Ostrov Natoinal Park(생태공원) 현장시찰

- 로쉬니 오스트라프 국립공원은 모스크바의 '폐기능'을 하는 곳이며, 1987년 생태보존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
- '모스크바'라는 대도시 안에 있는 도심 국립공원으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총 면적 1만2,000ha 가운데 '3분의 1'이 모스크바 시의 북동쪽에 속해 있음).
- 입구에서부터 자작나무 숲으로 우거진 이곳은 지금껏 한 번도 나무를 베 흔적이 없을 정도로 자연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었으며, 자동차나 버스, 기차, 도보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음.
- 1,300ha의 늪지대가 중앙 한 가운데 자리한 이 공원 안에는 7개의 여행객 센터가 있는데, 이곳의 역사와 자연환경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음.
- 매년 여러 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토양과 삼림 과학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들이 국립공원 안에서 이뤄지고 있음.
- 고대부터 러시아 군주들의 사냥터로 보호돼 지금까지도 'Wind Nature 박물관'으로 불리며, 이곳 풍경은 모스크바 크레믈린을 수 세기 전에 둘러쌌던 곳과 유사한 것으로도 이름나 있음.
- 공원 지면적의 절반이상이 주말이면 시민들의 레크레이션과 감흥을 위한 자리로 개방되기도 함.
-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동물의 다양함임. 무스와 야생 멧돼지, 여우, 비버, 산토끼, 사향, 쥐, 밍크, 산족제비를 포함한 40여종이 도시 중심 15km 안에서 발견될 정도로 잘 보존되고 있음.
- 또한, 대략 180여종의 새들이 국립공원에 등록돼 있고, 그것들 가운데

125종이 공원 안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음.

- 동 국립공원은 인공적인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었음. 거대한 면적만큼이나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허파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 우리나라도 무차별한 개발정책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러시아(모스크바) 의회 방문 : 정치·사회·문화 현황 및 신 모스크바 추진계획 청취 등

□ 러시아 연방 구성

- 러시아는 총 83개의 연방 구성주체들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임. 연방 구성주체는 공화국(21개), 자치주(1개), 자치구(4개), 지방(9개), 주(46개), 특별시(2개) 등 6개의 단위로 나뉘짐.
- 2004년부터 중앙집권화를 위해 러시아 대통령이 각 83개 지방정부의 수반을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1년 12월 하원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의 영향으로 2012. 7. 1일부터 83개 연방주체의 대표자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는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직접 선거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영토는 그 구성주체의 영토, 내수 및 영해, 그리고 그 위의 영공을 포함'하고, 제2항은 '러시아 연방이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구역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지니며 그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는 한

편, 제3항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간의 경제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71조와 제72조는 또한 연방과 구성주체 간에 있어 관할 업무 내용을 엄격히 분리해 놓고 있음. 우선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업무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법의 제정과 개정, 이들의 준수에 대한 통제
- 러시아연방의 구조 및 영토
- 사람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규제와 보호, 러시아에서의 국적, 소수민족의 권리 규제와 보호
-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연방체계, 그 조직 및 활동 절차의 제정, 연방국가 권력기관의 형성
- 연방 국유재산 및 관리
-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문화적, 민족적 발전 부문에 있어서 연방정책 원칙의 제정 및 연방 계획
-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의 제정, 금융, 통화, 신용, 관세의 규제, 통화 발행, 가격정책의 원칙, 연방은행을 포함하는 연방의 경제업무
- 연방예산, 연방세 및 징수료, 지역발전 연방기금
- 연방 에너지체계, 원자력에너지, 방사능물질, 연방운수, 교통, 통신, 정보망, 우주활동
-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국제관계, 러시아연방 조약,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 방위 및 안전보장, 국방산업, 무기, 탄약, 군사기술 및 기타 군사물자의 구입 및 판매 절차의 결정, 방사능 물질, 마약의 생산 및 그 사용절차

- 러시아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구역 및 대륙붕의 지위 결정과 보호
- 재판소 구성, 검찰기관, 형사, 형사소송, 형사행정의 법제, 사면 및 특사, 민사, 민사소송, 중재소소의 법제, 지적 소유권의 법적 규제
- 연방저축법
- 기상업무, 표준 규격, 도량형, 미터법, 표준시 계산, 측지 및 지도 작성, 지형물의 명명, 공식 통계 및 회계 계산
- 러시아연방의 국가포상 및 명예 칭호
- 연방 국가업무

- 아래 상술한 사항들은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 관할에 속함

- 연방구성주체들의 자치적인 헌장, 법률 및 기타 규범적 법문서의 러시아연방헌법과의 적합성의 보장
- 사람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수호, 소수 민족의 권리보호, 적법성, 법질서, 사회안전의 보장, 국경지역의 관리
-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및 기타 자연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문제
- 국유재산의 구분
- 자연의 이용, 환경 보호 및 생태학적 안전 보장, 특별자연보호지역과 역사 및 문화기념물의 보호
- 양육,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스포츠 등의 일반 문제
- 보건문제의 조정과 가족, 부모, 아동의 보호, 사회보장
- 참사, 자연재해, 전염병 퇴치를 위한 조치의 실행과 그 처리
-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과세 및 징수금의 일반 원칙의 확립

-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족, 주택, 토지, 수자원, 산림, 지하자원,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
- 재판기관 및 법 보호기관의 직원, 변호사 및 공증인 제도
- 소수민족사회 원래의 주거환경 및 전통생활 양식의 보호
- 국가 권력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체제조직원칙의 확립
-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제관계와 대외경제관계의 조정,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이행

○ 연방 관구

- 러시아 중앙중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체제 확립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역을 8개의 연방관구로 구분하고 각 관구별로 대통령 전권대사를 파견하고 있음. 러시아 대통령은 연방관구의 대통령 전권대사를 임명하며, 각 전권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관구 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조정, 통제 및 감독하고 있음.



구 분	관구명	관구소속 연방구성 주체수	중심 행정도시
1	중앙 연방 관구	18	모스크바
2	북서 연방 관구	11	쌍트페테르부르크
3	남부 연방 관구	6	로스토프나돈누
4	북 카프카즈 연방 관구	7	피찌고르스크
5	프리볼스키 연방 관구	14	니즈니노보고로드
6	우랄 연방 관구	6	에카테린부르크
7	시베리아 연방 관구	12	노보시비르스크
8	극동 연방 관구	9	하바로브스크

- 한편, 지방정부 수반의 대통령 임명과 연방관구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자치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전권대사와 지방정부 수반과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

□ 국가 조직

(1) 대통령

- 러시아 헌법에 의거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직선제를 기반으로 하는 6년 임기(중임 가능)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 1991년 러시아의 수립과 함께 도입된 대통령제는 1993년 신헌법 채택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확립하였으며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대통령 제도는 더욱 강화되어 '초대통령제'라 일컬어지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음.
- 초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것으로 일례를 들면 총리를 제외한 부총리, 장관을 의회의 동의 없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할 수 있으며, 의회 해산권, 법안제출권 등 의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특별사면권, 불가침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판사임명권과 검찰총장 임명과 해임을 제안할 수 있는 등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의회의 역할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화되어 있었음. 또한 지방 정부의 수반의 대통령 임명과 연방관구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자치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보리스 옐친: 1990.5~1999.12〉



〈블라디미르 푸틴: 1999.-2008, 2012-2018〉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8.5~2012.5〉

<역대 러시아 대통령과 재임기간>

연방헌법에 의거한 대통령 중심제의 성격과 특징

-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국가원수로서 국내 및 국제관계에 있어 러시아 연방을 대표(제80조)함과 동시에,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제87조).
-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제80조)등 실질적으로 러시아 국가권력의 정점에 위치
-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두마(하원)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하고, 정부 사퇴에 대한 결정권, 총리의 제청으로 부총리 및 연방 장관들의 임명, 해임권 등(제83조), 행정부 조직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지님.
- 의회와 관련해서는 국가두마 해산권을 비롯해 국가두마 선거를 지정, 법안 제출권 및 서명 공포권 등(제84조) 상대적으로 의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님.
-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은 과도한 사법적 재량권을 행사함. 즉, 특별 사면권(제89조), 대통령령과 명령(제90조)을 발할 수 있으며 불가침권(제91조)도 보유한 가운데 연방회의에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중재재판소 판사들과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제안하며 여타 연방재판소들의 판사를 임명(제83조).
- 아울러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를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보하도록 함(제8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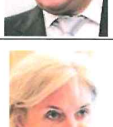
[2] 행정부

-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러시아 행정부는 대통령의 국정명령에 대한 수행을 담당하고 있음. 1997년 12월 7일 제정된 “러시아연방의 정부에 관한 법률(O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은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두마(하원)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임명함. 또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함은 물론, 정부의 조직을 개편할 수 있음.

- 러시아 행정부는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각료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함.
- 푸틴 대통령은 2012년 5월 8일 제6대 러시아 대통령직에 취임하며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음. 개편의 주 내용은 제1부총리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부처를 3개 늘리는 것이었음. 주목할 만한 점은 극동지역을 개발 전담할 '극동개발부'의 신설과 반정부 시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열린정부 소통부'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러시아 행정부는 국무총리 1명, 제1부총리 1명, 부총리 6명, 21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인사명단>

직책	성명	사진	관할 부처
국무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행정 각부 통괄 (단,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비상대책부는 대통령 직보 체제임)
제1부총리	이고르 슈발로프		감독부처: 재무부, 경제개발부, 극동개발부
부총리	드미트리 로고진		감독부처: 국방부, 비상대책부
부총리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감독부처: 법무부, 매스컴언론부

직책	성명	사진	관할 부처
부총리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감독부처: 농업부, 산업통상부, 에너지부, 천연자원환경부, 교통부
부총리	드미트리 코작		감독부처: 체육부, 지역개발부
부총리	알렉산더 홀로포닌		카프카즈 지역문제 담당
부총리	올가 골로제츠		감독부처: 보건부, 교육과학부, 노동사회부, 문화부

- 내무부 장관 :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 외무부 장관 : 세르게이 라브로프
- 법무부 장관 : 알렉산드로 코노발로프
- 시민보호부 장관 : 블라디미르 푸즈코프
- 국방부 장관 : 세르게이 쇼이구
- 재무부 장관 : 안톤 실루야노프
- 경제개발부 장관 : 알렉세이 울루카예프
- 극동개발부 장관 : 빅토르 이사예프
- 보건부 장관 : 베로니카 스카보르초바
- 교통부 장관 : 막심 소콜로프
- 문화부 장관 : 블라디미르 메진스키
- 지역개발부 장관 : 이고르 스튜나예프
- 노동사회부 장관 : 막심 토필린

- 에너지부 장관 : 알렉산더 노박
- 교육과학부 장관 : 디미트리 리바노프
- 메스컴언론부 장관 : 니콜라이 니키포로프
-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 세르게이 돈스코이
- 농업부 장관 : 니콜라이 표도로프
- 열린정부소통부 장관 : 미하일 아브조프
- 산업통산부 장관 : 데니스 만투로프
- 체육부 장관 : 비탈리 무트코

[3] 입법부

- 러시아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다. 연방회의이라 불리는 상원은 83개의 연방주체의 행정부 수반(지방정부 주지사)과 입법부 수반(지방의회 의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각 연방주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총 166명(83개 연방주체 ×2인 = 166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원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 간의 경계선 결정,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한 승인, 해외 군사력 파견 결정,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2004년 12월 푸틴 전 대통령이 지방정부 주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상원의 행정부 견제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임.
- 하원(State Duma)의 구성은 225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 지역대표 225명과 정당명부에 의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225명 등 총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원은 총이 및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동의, 내각 불신임 결의, 대통령 탄핵 발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지난 2011년 12월 4일 치러진 총선은 5년 임기의 국가두마 첫 선거로, 푸틴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은 49.5%를 득표해 238석을 얻어 과반선을 넘어섰으나 지난 선거에 비해 77석을 잃었으며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또한 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29개 상임위원회중에서 14개 자리를 야당이 차지하여 이전에 비해 여권의 정치적 힘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대안이 될 만한 야당 세력이 없어 여권이 푸틴 행정부의 영향권 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정당별 의회 구성>

정당명	성향	대표	의원수(명)	득표율
통합러시아당	보수, 여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38	49.5%
공산당	공산주의, 극좌	젠나지 주가노프	92	19.2%
자유민주당	극우민족주의	세르게이 미르노프	64	13.2%
정의러시아당	사회주의, 민주주의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	56	11.7%

[4] 사법부

- 러시아 사법제도는 소련의 해체된 이후 90년대 초의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서 정착되었음. 개혁의 주된 목표는 소련 시절 재판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었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1993년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 러시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재판소, 군사재판소

로 이루어져 있음. 헌법 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 구성공화국 헌법재판소로 나뉨.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률 등 제 법령의 위헌여부 및 연방정부 기관간의 권한 분쟁을 심사하며, 연방 구성 공화국 헌법 재판소는 상동 업무를 공화국 내 차원에서 실시함.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관할하는 러시아의 일반법원은 여러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각 지방의 지역(Ragyon) 및 일반 시(City)의 법원이며, 2단계는 지방(Kray)법원과 주(Oblast)법원,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시법원 등임. 연방 구성공화국의 대법원과 자치구 법원도 2단계에 구성되며. 법원의 최고 상위는 연방대법원이라고 함.

- 중재재판소는 주로 경제 분쟁과 중재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행위들을 심판하며, 최고 단계에 고등중재재판소가 있음.
- 러시아의 재판제도에도 부분적인 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배심원제도의 도입과 판사의 독립성 확보임. 지난 2001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판사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3종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서명한 바 있음. 또한 1993년 일부 지방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됐던 배심원제도가 본격 도입돼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강력한 대통령제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과도한 사법적 재량 보유 등으로 사법부 대통령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로 사법부의 완전 독립은 요원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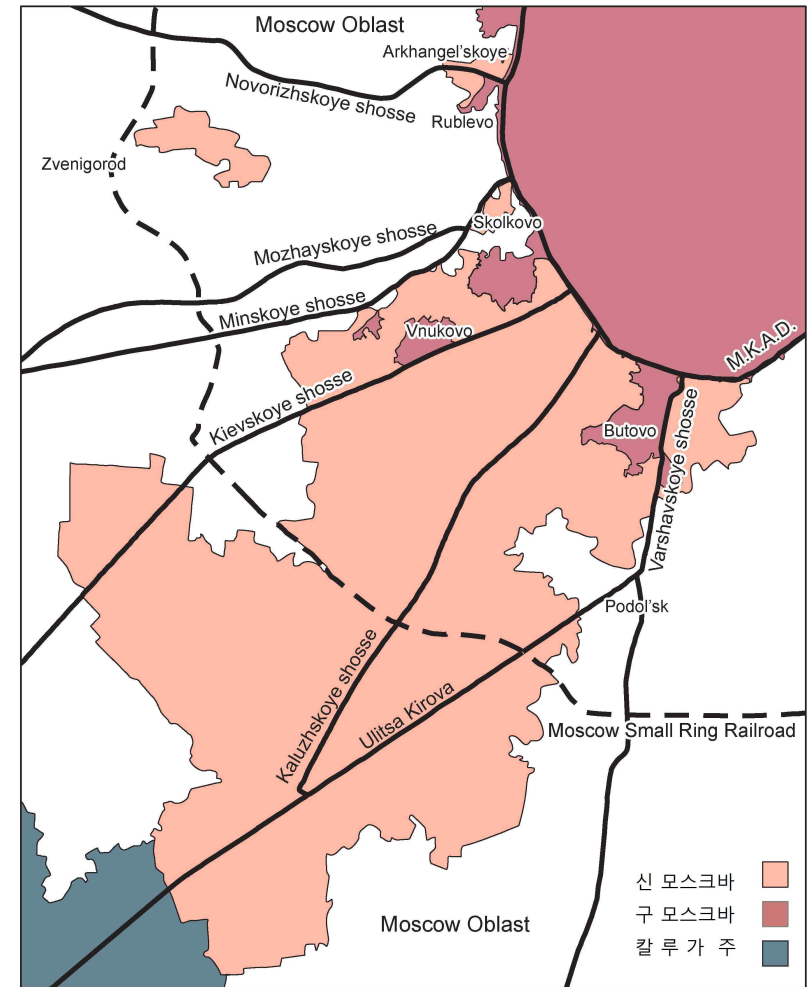
□ ‘신(新) 모스크바’ 건설계획 주요내용 청취

- 2012년 7월 1일부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인접한 모스크바 주의 관할지역 1,480km²를 합병하면서 기존의 2.3배로 확장되었음.
-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도권 개발을 목적으로 경계확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
- 경계확장의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8%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과도한 인구집중화와 교통망의 한계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등임.
- 러시아 연방정부와 모스크바 시정부는 ‘6대 비즈니스 및 사회활동 신중심지’ 설정과 교통인프라 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음.
- 새로 편입된 지역에는 1) 행정-비즈니스 클러스터, 2) 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 3) 연구-혁신 클러스터, 4) 대학-교육클러스터, 5) 의료클러스터, 6) 휴양-관광 클러스터로 구성되는 ‘6대 비즈니스 및 사회활동 신중심지’가 배치될 예정임
- 연방회의(상원), 국가두마(하원), 대통령 행정실,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 대검찰청, 조사위원회, 감사원, 연방대법원, 최고중재법원, 모스크바 사법원 등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기관들의 이전계획이 마련되었음.
- 첨단 과학기술단지인 ‘혁신센터’가 건설되고 있는 스콜코보와 전통적인 과학도시 트로이츠크를 중심으로 연구-혁신클러스터를 건설하고, 대학캠퍼스 1~2개를 유치하여 대학-교육클러스터를 건설할 예정임.
- 구 모스크바와 신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도로·지하철·철도 등 대대적인 교통인프라 건설 및 보수가 추진되고 있음.
- 신 모스크바 건설은 장기적으로 모스크바의 도시구조를 변화시켜 인구

집중화와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 약 15조 루블(미화 약 4,600억 달러)이 소요되고 모스크바 정부는 동 사업을 전담할 부서 신행정구 발전국을 신설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구 모스크바와 신 모스크바 구역도>



<신 모스크바 주요 계획도>

4. 모스크바 메트로(지하철) 현장시찰

○ 메트로(지하철) 역사

- 모스크바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1935년 5월 15일 처음 개통되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앞서서 개발되었음. 처음 완성되었을 당시, 지하철 노선은 11.5km에 13역이 있었으며, 14개의 열차가 운행되었음.
- 첫 노선은 소콜니키역에서 파르크 쿨투리역까지 이어졌고, 중간에 스몰렌스카야역으로 가는 분선이 있었음. 이 선은 나중에 아르바트 선이 되었으며, 1938년 키엠프스카야역까지 확장되었음.
- 독소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1938년 5월에는 아르바트선에 쿠르스카야역(현재 아르바트스코 포크롭스카야 선 소속)이 추가됨. 1938년 9월에는 플로샤디 스페들로바역(1990년 테아트랄나야(러시아어: Театральная)역으로 개칭되었다)에서 출발해 소콜역까지 운행되는 고리콥스코-자모스크보레츠키야 선(현재의 자모스크보레츠키야 선)이 열렸음.
-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모스크바 지하철은 독일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로 사용되었음.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한 1941년 10월 15일에는 모스크바 지하철의 책임자인 카가노비치는 비밀리에 지하철 폭파 명령을 내렸다고 함. 모스크바 지하철은 전 구간에 걸쳐 독일군이 지하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를 지시하는 한편, 차량은 대피시키기로 계획했음.
- 이로 인해 다음날인 16일 오전 모스크바 지하철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운행하지 못했음. 하지만 당일 저녁에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교에서 진격을 멈춤에 따라 폭파 명령은 취소되었고 지하철은 다시 운행을 시작했음.

- 모스크바 지하철의 3차 공사는 독소전쟁 중 계속되었다. 지하철 건설은 1942년 5월에 재개되었음. 1943년 1월에는 플로샤디 스페들로바역(현재의 테아트랄나야 역)에서 자보드 이메니 스탈리나역(1956년 압토자보드스카야(러시아어: Автозаводская)역으로 개칭되었다)이 개통되었으며, 파벨레츠키야역과 노보쿠즈네츠키야역은 훨씬 나중인 1943년 11월에 개통되었음. 이후 1944년 1월에는 쿠르스카야 역에서 파르크 이즈마일롭스키 역(2005년 파르티잔스카야(러시아어: Партизанская)역으로 개칭됨.)을 잇는 부분이 완성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콜체바야 선과 키엠프스카야 역에서 플로샤디 레블류치 역(러시아어: Площади Революции)까지 이르는 공사가 재개되었음. 파르크 쿨투리 역에서 쿠르스카야 역에 이르는 첫번째 선은 모스크바를 원형으로 가로지르는 순환도로 밑에 있었음. 하지만 콜체바야선의 북쪽 부분은 순환 도로에서 1km에서 1.5km 떨어져 짓기로 결정되었고, 역의 개수도 일곱 역에서 아홉 역으로 늘려 짓게 되었음. 콜체바야 선은 1950년 개통되었으며, 개통 당시 쿠르스카야 역에서 벨로루스카야 역을 이었다. 콜체바야 선은 1954년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아르바트선이 지하 깊숙이 건설된 이유는 당시 냉전이 시작되기도 했다 때문이기도 함. 깊은 곳에 지하철을 짓는 것은 적의 공습과 핵전쟁으로부터 방공호로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음. 아르바트 선의 1953년 새로운 구간이 완공된 이후에는 기존에 건설하고 있던 부분(현재의 필롭스카야 선의 알렉산드롭스키 사드역부터 키엠프스카야역까지의 부분)을 폐쇄함. 이 구간은 필롭스카야 선의 일부로 1958년 다시 개장되었음.
- 2009년 12월, 아르바트스코 포크롭스카야 선은 키엠프스카야역에서 미티노역까지 연장되었음. 같은 해, 류블린스코 드미트롭스카야 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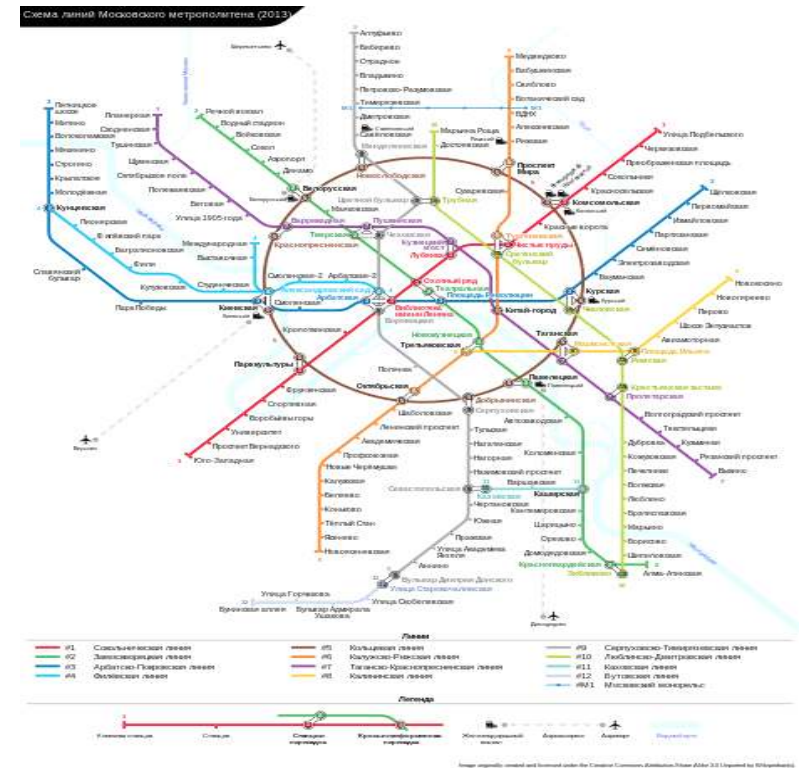
츠칼롭스카야역에서 마리나 로샤역까지 노선을 확장함. 2010년 5월 15일 모스크바 지하철은 개통 75주년을 맞아 모든 역에 해당 역이 건설된 날짜와 건축가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기념판을 세웠음.

- 모스크바 시의 지하철은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와 노보시비르스크 등 다른 러시아의 도시에도 지하철이 생기는데 기여했으며, 북한의 평양 지하철 역시 모스크바 지하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함.
- 현재, 모스크바 지하철의 길이는 약 301km에 달하며, 12개 노선에 186개 역을 가지고 있음. 모스크바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도쿄 지하철 다음으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임. 일일 이용자는 평균 약 900만명에 달하며 모스크바의 대중교통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대중교통수송분담률의 약 40% 점유)

노선	노선명	첫 개 장	마지막 건설	거리	역
1	소콜니체스카야 선	1935년	1990년	26.1km	19
2	자모스크보레츠카야 선	1938년	1985년	36.9km	20
3	아르바트스코 포크롭스카야 선	1938년	2009년	43.5km	21
4	필롭스카야 선	1958년	2006년	14.9km	13
5	콜체바야 선(순환선)	1950년	1954년	19.3km	12
6	칼루시스코 리시스카야 선	1958년	1990년	37.6km	24
7	타간스코 크라스노프레스넨스카야 선	1966년	1975년	35.9km	19
8	칼리닌스카야 선	1979년	2012년	16.3km	8
9	세르푸홉스코 티미라젠프스카야 선	1983년	2002년	41.2km	25
10	류블린스코 드미트롭스카야 선	1995년	2011년	28.2km	17
11	카홉스카야 선	1995년		3.3km	3
12	부톱스카야 선*	2003년		5.5km	5
총 합				308.7km	186

- 특히, 모스크바 중심가에 위치한 빠르그 빠베디역(승리공원역)은 모스크바 182개 지하철역 중 가장 깊은 지하 85m에 건설되었으며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126m(계단 수 740개)에 달한다고 함. 열차는 평균 1분 30초 간격으로 운행되고, 출근 시간대에는 열차가 20~30초마다 역을 통과한다고 함.

- 승강장은 돔 형의 천장과 벽에 상들리에, 그림 등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갤러리에 온 느낌을 주었으며, 약 100m 깊이의 지하임에도 환기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소음이 매우 큰 편이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하철의 상태는 매우 열악한 편이었음.



<모스크바 지하철 노선도>

5. 기타 문화체험

○ 푸시킨 박물관

- 1898년 짓기 시작하여 1912년에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은 페테르부르크에 이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의 예술품들을 모아 놓은 박물관임.
-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많은 수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의 그림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음.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반고호의 빨간 포도 동산(Red Vineyard at Arles)이었음. 그 외에도 피카소와 다른 유럽 거장들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이러한 소장품들은 학생들의 시각 교재로서 큰 효용이 있다고 함.

○ 붉은 광장

- 붉은 광장은 국립 역사 박물관과 굽 백화점 및 양파머리 모양의 바실리 사원에 둘러싸여 있는데 전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던 시장이었음.
- 크라스나야 뿔로샤지, 즉, 현재는 "붉은"으로 해석되는 이 광장의 명칭은 고대 러시아어로는 "아름다운, 예쁜"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본 의미는 "아름다운 광장"이었으나 많은 이들은 메이데이와 혁명 기념일에 붉은색의 현수막이 국립 역사 박물관과 굽 백화점의 벽에 걸리고, 사람들이 붉은 깃발을 손에 들고 있어서 광장이 온통 붉은색이 되었다는 데서 그 명칭의 유래를 찾기도 함.
- 붉은 광장 주변에는 아직도 살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누워있는 레닌의 묘, 불균형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 바실리 사원, 국립 역사 박물관, 모스크바 최대의 백화점인 굽 등이 있음.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 1755년 러시아의 대학자 미하일 로마노소프(Михаил Ломоносов)에 의해서 설립된 이래, 2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학임.
- 최초 본 대학교는 붉은 광장 역사 박물관 자리에 위치했으며, 3개 학부(철학, 법학, 의학)로 출발하였음. 당시 학생은 귀족과 평민 출신 지식인으로 구성되었고, 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며,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국립대학교로 지정되었음.
- 모스크바 대학은 현재 40여개 학부와 아시아-아프리카 대학, 15개 연구소(공학, 핵물리, 물리학, 천문학, 계량, 소입자, 존재론, 수학, 사회, 정보보안, 교육연구, 러시아-게르만 문화, 세계문화, 공자)산하에 40,000여명의 학생(유학생 2,500명), 2,500여명의 박사과정, 6,000여명의 연구원 등이 공부하고 있으며 1,000명의 교수와 2000명의 강사가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음. 한편, 본 대학 도서관은 8백 만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고 함.
- 1948년 구 소련 정부는 레닌 언덕에 대학 건물을 새로 세우기로 결정하였으며, 1953년 본관 완공에 이어 1970년 제1인문관, 1978년에 제2인문관 건물이 차례로 완성 되었음. 이로써 현재 본 대학교는 구 관과 신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모스크바 대학교에는 우리나라 유학생 약 150여명이 재학중이라고 함.

II.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1.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3. 8. 11(금) / City Palace Hotel

□ 참석자 : 총 19명

○ 운영위원장(13명) 및 관계공무원(6명)

□ 주요내용 : 2013년도 하반기 협의회 사업계획 논의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하반기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1]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개발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여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3. 9 ~ 2013. 11 / 3개월간
- 추진방법 : 지방행정연구기관, 학회, 대학연구소 등에 연구용역 발주
- 사업내용 : 지방자치발전 관련 제도개선 과제 개발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3. 9 ~ 2013. 11 / 3개월간
- 참가자격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자
- 공모주제 :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및 지방의회 제도개선사항
- 시상내역(총 11편) : 대상(1편), 최우수상(3편), 우수상(5편), 장려상(10편)
- 개최방법 : 지방자치(법)학회 또는 행정학회 등과 공동 개최 추진

3] 행정안전부 차관(또는 실·국장급) 초청 간담회

●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실·국장급과의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일정 : 2013. 10월중(예정)
- 개최방법 : 행정안전부와 일정 협의 후 간담회 개최 추진
- 참석대상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등
- 주요내용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현안사항 논의 등
- ※ 협의회 정기회 개최시 행안부 선거의회과장 또는 실무담당자 참석 유도

4] 지방자치법 등 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 보좌관 제도 도입,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관련 법률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촉구를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일정 : 2013. 하반기 중
- 서명대상 : 국회의원(300명),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약 3,800명)
- 추진방법 : 각 시·도의회에서 서명서 취합 후 관련기관에 제출
- 제출기관 : 국회, 행정안전부, 여·야 당대표 등
- 주요내용 : 지방의회관련 법률 심사 및 신속한 개정 촉구

5]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관계직원 워크숍 개최

●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의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협의회를 구축하고자 함.

- 일 시 : 연1회(2013. 11월중 / 1박 2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석대상 :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공무원 약 50명
- 주최 및 후원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 기타 논의사항

- 제6기 후반기 임원진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 임원진을 전라남도의회에서 개최되는 정기회에서 새롭게 선출하기로 합의(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정책위원장 등)
- '13년 하반기에도 주요사업계획 이외에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과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의장협의회와 확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금년 10월 정기회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함.
- 차기 정기회는 전라남도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함('13.9.25~26.예정).

2.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의회 방문 :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방문일정은 취소하고 서면질의서로 대체함.

□ 우즈베키스탄의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 우즈베키스탄은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 형태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로 강력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정부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각 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통령은 임기 7년이며, 주요권한은 군통수권, 법률거부권, 국가비상사태 선포권, 총리 및 각료 임면권, 검찰총장 및 부총장 임면권, 지방정부 관리 임면권을 가지고 있음.
- 내각은 1명의 총리와 6명의 부총리로 구성되며, 그 밑으로 13부의 장관과 9개의 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총리는 대통령 지명 후 국회 동의로 선출되며, 각료는 총리 추천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정부는 12개 주정부와 타슈켄트 시정부로 구성되며, 최고관리인 하킴(Hakim)은 5년마다 지역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의회가 존재함. 그리고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음



<우즈베키스탄 정부구조>

□ 호킴(Hokim)이란 무엇인가?

- 우즈베키스탄의 주, 시, 구의 지방행정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호킴이라 불리는 장에 의해 통합되어 있음.
- 호킴은 헌법 제103조의 1인 관리의 원칙(Principle of one-man management)에 따라 의회(인민대표자회의)와 집행부의 수장을 겸하고 지방차원의 모든 행정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됨.. 단독책임의 원칙에 따라 호킴은 수직적인 계층을 형성함.
- 타슈켄트시와 주의 호킴은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와 군의 호킴은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을 관장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장(타슈켄트시장 또는 주지사)이 임명함. 호킴은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호킴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임.
- 우즈베키스탄의 지방의회는 연 2회 개최되는 회기 중에만 업무를 수행하며, 회기는 보통 1-2일에 불과하고 몇 시간의 안전처리로 끝남. 폐회 중에는 호킴이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

□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떠한가?

- 지방정부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광범위하게 주어져 있음. 지방정부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 의회의 결정, 대통령 및 내각의 결정을 집행함.
- 헌법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역의 조세부과, 예산편성 및 집행, 경제, 사회, 문화, 농촌지역개발, 법질서유지,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호킴은 이러한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모든 개인 및 단체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칙, 명령, 훈령 등을 발할 수 있음.

- 지방정부는 외자유치,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합작기업이나 공장의 신설 등 지역 내의 외국기업 활동을 확대, 촉진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를 위한 지역시책을 마련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우즈베키스탄은 토지는 모두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 소련시대의 국영기업, 농장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주요 토지, 농장, 공장이 국유인 경우가 많음.
- 지방정부활동의 재정적 기초는 당해 지방소재 모든 행정기관의 국가재산(공공재산: Communal Property)과 당해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여되는 기타 다른 재산으로 구성됨.
- 지방의회는 국가재산의 배분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짐. 또한 국가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호킴과 지방의회는 생산 및 사회시설의 효율적 배분, 자연자원과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 자연보호,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등을 위한 부분적인 통제권을 가짐.
- 지방정부의 재원은 예산, 예산외신탁기금, 차입금, 다른 예산으로부터의 양여, 기부금으로 구성됨. 이는 지역간 사회경제개발프로그램 등 공동프로그램을 위해 계약에 의해 다른 지방정부, 기업, 단체, 조직, 개인의 자원과 통합 운용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예산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정부의 예산과 그 집행결과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며, 지방정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정부의 호킴이 담당하며, 집행부의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
- 지방정부의 세입은 법령에 따른 세금 및 공공요금, 지방소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수입, 환수, 추정금중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기타 법령에 따른 수입으로 구성됨.
- 지방의회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의한 자발적인 기부, 법령에 의한 특정형태의 벌금, 다른 예산외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외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예산외기금의 재원은 특별은행계정에 두고 압류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해 지방정부의 호킴과 의회의 결정에 의해 지출됨.
- 타슈켄트시와 각 주의 의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유적지 등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원하고 관리함. 옛 유적지들이 많이 복원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마르칸트 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한 적이 있으며 고속열차를 투입하여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들에 대한 복지수준은?

- 우즈베키스탄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임. 연금은 여자

는 55세부터, 남자는 60세부터 지급하고 있음.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음. 다른 나라에 비해 연금지급 연령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함.

3. 아리랑 요양원 방문 및 봉사활동

○ 주요활동 : 운영현황 청취, 봉사활동, 기념품 전달 등

-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을 위한 첫 양로원으로 2006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시작하였음.
-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7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했던 “고려인 독거노인 양로원 건립 사업” (아리랑 요양원) 으로 우즈베크 정부는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고려인 문화협회에 제공하였고,
- 외교 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폐허가 된 유치원 건물을 61만 달러를 들여 이 나라에서는 최고의 시설로 리모델링 하였음.
- 고려인 노인들은 현재 40명의 의사와 간호사의 보살핌 아래 편안히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이 시설의 운영은 한국 국제보건 의료재단이 맡아서 관리해오고 있음.
- 타슈켄트주 아흐마드야사위 마을에 건립된 요양원은 대지 3600평에 ‘ㄷ’ 자 2층 건물로, 침실과 식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아리랑 요양원이 건립된 마을은 고려인들이 1937년 연해주로부터 우즈베크로 강제이주 당해 처음으로 정착해서 살아온 ‘고려인 집 단촌’이었으며,

- 현재, 요양원에는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 치매 환자나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려인들이 생활하고 있음. 평균 연령은 79세, 최고령자는 90세였음.
- 요양원에는 1937년 강제이주 이전에 출생했거나 건강진단을 통해 전염성 질환이나 중증환자, 정신질환자가 아닌 고려인 1세대는 누구나 입소를 할 수 있다고 함.
- 고려인들은 대부분 해외이주 2세대로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과 LG, 대우자동차 등 브랜드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조국의 지원이 거의 없어 낙심하고 있던 중, 최근 요양원을 설립·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고 있었음.

※ 현재 우즈베크에는 고려인이 20여만명이 살고 있으며, 주재원 및 사업 등으로 나가 있는 한국인은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4. 김병화 농장 및 박물관 방문

○ 주요활동 : 농장 설립배경과 최근 운영현황 청취, 기념품 전달 등

-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1937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 그리고 그들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콜호스(집단 농장)를 경영하며 현지인과 고려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던 고(故) 김병화 농장과 박물관을 방문함.
- 타슈켄트 시내에서 약 20분 거리에 김병화 농장이 있는데, 한국인들이라면 우즈베크 방문길에 반드시 찾게 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본래 명칭은 '북극성 농장'이라고 함. 1929년 연해주에 북극성 농

장이 조직되었고 이후 1937년 강제이주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주에 자리를 잡은 북극성 농장의 농업개혁의 역사는 1940년 김병화가 농장 대표로 선출되며 시작되었다고 함.

- 우즈베크공화국은 그가 세상을 떠나던 1974년,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병화 농장'으로 개칭하였음.
- 김병화씨는 1940년부터 1974년 사망하기까지 농장장으로 콜호스를 이끌며 매년 쌀과 목화 생산에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그로 인해 한때 많게는 1,924가구, 7,823명(고려인과 우즈베크인 포함)까지 속해 있던 대규모 농장이었음.
- 그러나, 소련 붕괴와 함께 1,500여명이던 농장의 고려인 중 상당수가 도시로 떠나 농장에 고려인들은 이제 800여명 밖에 남지 않았고 이마저 노인과 어린이가 대부분으로 이후 농장은 쇠퇴하였고 고(故) 김병화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박물관을 개장했다고 함.
- 박물관에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기증한 벽시계가 멈춘 채 걸려있었는데, 이는 마치 우즈베크의 고려인과 한국인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어떠한 교류 협력의 길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박물관을 나서는 방문단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음.

5. 실크로드 중심지 : 사마르칸트 현장시찰

○ 주요활동 : 사마르칸트 역사 및 문화 청취, 박물관 등 현장시찰

- 사마르칸트 역사 도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주에 위치하며, 세계의 문화 교차로이며 용광로라 할 수 있음.

- 기원전 7세기에 고대 도시 아프라시아브(Afrasiab)로 건설된 사마르칸트는 14, 15세기 티무르 제국 시대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음.
- 특히,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큰 교역로들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잡은 사마르칸트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
- 한편, 아프로시아 박물관에서는 고구려 사신 벽화가 전시되어 우즈벡과 우리 고대문화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이외에도 주요 기념물인 울루그베그 천문대, 레기스탄 모스크, 마드라사(madrasa, 이슬람 고등교육기관), 비비하눔 모스크, 샤희진다와 구르에미르 단지 등 관람을 통해 고대 실크로드 중심지인 사마르칸트의 문화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 구, 소련연방으로 병합된 이후 수도를 사마르칸트에서 타슈켄트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다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즈벡 정부의 투자가 한참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KTX와 같은 철도가 건설되어 있었으며 1일 2회 왕복운행하면서 관광객의 수요를 맞추고 있었음.

6. 기타 문화체험

◦ 침간산 및 차르박호수

- 침간은 천산산맥의 지류로서 타슈켄트시로 부터 약 70km 가량 떨어져 있음. 승용차로 타슈켄트에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며, 해발 2,000미터에 나무가 거의 없는 특이한 모습의 준봉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음.

- 침간산의 정상은 3,309m이며, 한때 황제국의 대관들이 이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엘리트들 또한 혁명 후에 병든 노동자들을 위해 여름 휴양지를 지었음.
- 그리고 동계스포츠를 좋아하던 러시아인들은 침간산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훌륭한 산세와 맑고 상쾌한 공기와 날씨 그리고 훌륭한 슬로프는 타슈켄트 시민들에게는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여름에는 윈드서핑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함.
- 바다가 없는 우즈벡에서 차르박은 여름 피서지로서 가장 인기있는 휴양지이며, 리프트를 타고 침간산의 중간 정상에서 발아래로 펼쳐지는 장엄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며, 산 중턱에는 인공 호수인 차르박호수라는 곳도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여름철 대표적인 휴양지 중의 하나로 자국민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함.

III. 연수결과 및 시사점

□ 금번 러시아(모스크바) 및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방문은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 도시 및 도시의회간 정보교류와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진행된 것임. 협의회장인 이창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전국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3명, 수행공무원 6명, 총 19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음. 다만,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의회 방문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질의/답변으로 대체된 점은 매우 안타까웠음. 금번 연수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및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6기 후반기 협의회 출범이후 성과와 반성을 통해 잔여 임기 내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과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합의함.
- 2) 모스크바의회 등과 우리나라 광역의회간 의회 운영현황 및 각종 의회제도에 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양 도시 및 도시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진된 형태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음. 나아가 도시의회 수준을 넘어 국가차원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 국가간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크게 공감하였음. 금번 방문단의 모스크바 방문은 그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기대됨.

보다 실질적인 친선교류 및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 및 정보 교환 등 의원간 장기교류 사업 등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단순한 친선교류를 지양하고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문화 및 도시계획, 건설,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정책분야별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성을 인식함.

3) Rosinnui Ostrov Natoinal 현장시찰을 통해 인공적인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었음. 거대한 면적만큼이나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허파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 우리나라도 무차별한 개발 정책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최근 러시아는 높은 임대료 등 高 물가와 엄청난 교통체증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러시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모스크바 건설계획의 주요내용, 추진경과,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였고, 동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도시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스크바의 인구집중화와 교통체증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임
 - 과거 모스크바의 경계확장이 도심을 그대로 둔 채 외곽을 확장하여 기존 방사형 구조를 재생산하는 형태였다면, 이번 계획은 이러한 방식을 탈피하여 도심의 중요한 기능(정치·행정, 비즈니스 중심지 등)을 새로 편입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구조 자체의 혁신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번 경계확장과 신 모스크바 건설은 18세기 초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발트해 연안 네바 강 하구 늪지대에 새로운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임.
 - 현대 러시아에서 정치행정과 비즈니스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대통령행정실과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대대적인 이전은 도심의 높은 임대료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 기업들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러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와 세제혜택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번 확장을 계기로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 모스크바 광역권 교통망의 정비와 통합, 교통인프라 확충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엄청난 교통체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다만,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신 모스크바와 구 모스크바 간 교통망의 연계성은 강화하되, 이 지역이 일자리와 주택이 동시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자립성을 가져야만 인구집중화와 교통체증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부적인 발전계획 없이 성급하게 경계확장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러시아 정부와 모스크바 정부가 발표한 교통인프라 발전방안의 대부분이 구 모스크바와 신 모스크바 간 연계성 강화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임. 이에 반해 신 모스크바의 도로망 건설, 대중교통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 보임.

- 또한 신 모스크바 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세부계획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중단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짐.

- 모스크바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함께 2011년 12월 총선부터 2012년 3월 대선까지 ‘반 푸틴’ 시위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임.

지난 대선에서 83개 연방주체 중 푸틴의 득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도 모스크바였음.

- 러시아에서 수도 모스크바가 지닌 정치적·경제적·인구학적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푸틴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 집권 세력이 신 모스크바 건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짐.

○ 따라서, 우리 정부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신 모스크바의 발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 도심의 비즈니스 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높은 임대료와 교통체증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신 모스크바에 조성될 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 기업들의 반응과 이전에 따른 혜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신 모스크바 건설이 본격화되고 교통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면 다수의 현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 모스크바 남서쪽도 동반 발전하게 될 것임. 현재 구 모스크바의 북쪽에 위치한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지리적으로 구 모스크바의 남서쪽과 가깝고 신 모스크바에 둘러싸여 있으며, 향후 행정센터가 들어설 콤무나르카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브누코보 국제공항의 확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투자, 건설, 건설장비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모스크바 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직면한 관련 국내 건설사들과 인프라 투자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러시아 연방정부, 모스크바 시정부 등과 접촉하여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파악하고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5) 러시아의회의 역할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화되어 있음. 특히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지방 정부의 수반의 대통령 임명과 연방관구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자치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6) 우즈베키스탄의 지방정부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광범위하게 자치권이 주어져 있었음. 헌법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역의 조세부과, 예산편성 및 집행, 경제, 사회, 문화, 농촌지역개발, 법질서유지,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호킴(우리나라의 단청장과 유사함)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정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었음.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의회와 마찬가지로 당해 지방정부의 예산과 그 집행결과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호킴이 담당하면서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7) 2012년 9월 한국과 우즈베크 정부는 정보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자정부 전문가인 김남석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올해 2월 우즈베크 정보통신기술(ICT)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음. 김 전 차관은 국내 공무원의 해외 정부 파견 형식이 아닌 우즈베크의 공무원으로 정식 임명돼 국내 공무원이 외국 정부에서 차관급 인사로 임명된 첫 사례였음. 최근 러시아어로 중

합포털을 뜻하는 '에딘느이 보르탈(www.my.gov.uz)'은 실시간으로 공문서 발급 및 접수, 세금조회, 부동산 법률 등 약 60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첫발을 내딛고 있음. 향후 우즈베키스탄이 한국형 전자정부를 모델로 수립한 마스터플랜 기반으로 다수의 전자정부 사업들을 발주하게 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함.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8) 1937년 이후 집단적으로 강제이주 된 고려인 1 세대의 삶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한국인의 근면성과 자긍심을 널리 알렸던 집단농장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병화 박물관」을 시찰하였음. 현재, 김병화 후손이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규모나 면적면에서 매우 초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음. 박물관에는 김병화씨가 사용하던 탁자와 의자, 그의 단별 양복들이 전시돼 있었음. 그의 책상이 놓인 벽면에는 '이 땅에서 나는 새로운 조국을 찾았다'는 문구는 방문단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음.

김병화씨의 생애와 그의 업적, 박물관에 전시된 물건 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안내인에게 기념품과 위로금을 전달하였음. 한국의 지난 세기의 아픈 역사로 인해 조국을 등지고 떠나면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해외동포에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다 많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방문단은 크게 공감하였음. 향후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9) 한국정부에서 초 현대시설로 설립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리랑 요양원은 우즈베크 내의 8개 요양원 중 고려인을 위한 유일한 시설로서 한국인의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미 제1세대가 모두 사망하고 제2~3세대가 생활하고 있었으나 우리

말이나 조국에 대한 기억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음.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설 지원 등 향후 협력방안
 을 토론하고 기념품 전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

IV. 주요 사진



참고1 국가정보 : 러시아 및 모스크바

< 러시아 >

명칭은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으로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과거의 면적 및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지만, 아직까지도 유라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인구(약 1억 5000만 명)를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기는 1705년 1월 20일 피터 대제가 최초로 상업을 하는 선박들에 게양시키기 위해 백, 청, 적의 3색 국기를 제정해 사용하다가 긴 역사를 걸쳐 1993년 12월 11일 엘친 대통령에 의해 지금의 국기로 부활되었다. 국기의 백색은 고결함과 정직함을 나타내고, 청색은 믿음, 공정함, 순결함을 뜻하며, 붉은색은 용기와 용감성, 헌신, 관대함,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다.

- ◆ 국 명 : 러시아 연방(RF, Russian Federation)
- ◆ 위 치 : 동부 유럽 및 아시아 중북부, 동경 100° 00", 북위 60° 00"
- ◆ 면 적 : 1,708만km²(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세계 최대 영토 보유국
 - 동서 양극 지역간 시차는 총 11시간
- ◆ 민 족 : 러시아인(80%),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2%) 및 140여개 소수민족(8.41%), 고려인은 약 20만명
- ◆ 언 어 : 러시아어(각 민족공화국은 고유어 상용 가능)
- ◆ 문 자 : 키릴 문자를 모체로 한 러시아 문자
- ◆ 기 후 : 대륙성 기후(모스크바 부근은 겨울 평균기온 영하 10℃이고, 여름 평균기온 영상 16℃)
- ◆ 인 구 : 약 1억 4,200만 명
 - 연평균 인구증가율: -0.46%
- ◆ 수 도 : 모스크바(Moscow, Москва)(2009년 7월 기준 인구 1,454만 명)

- ◆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 행정단위 : 7개 연방 단위로 묶인 총 83개 연방 구성체
- ◆ 종 교 : 러시아정교회(75%), 이슬람교(5%),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등 다수
- ◆ 교 육 : 6세~15세 의무교육 실시
- ◆ GDP : 1조 2,292억 달러
- ◆ 화폐단위 : 루블(Ruble, рубль, 1 미국달러=약 29.5 루블, 2010년 9월 기준)
- ◆ 주요민족 : 러시아인이 85%, 그 외는 소수민족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수 민족은 오랜 동안 소련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던 민족이 많아 자연스레 민족간의 갈등이 잦은 편이다. 간혹 민족분류가 마스크를 장식한다.
- ◆ 기 후 : 러시아의 기후는 위치와 면적, 지형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광대한 영토의 대부분이 중위도 또는 고위도에 위치하고 한랭한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해양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러시아는 동서로 길 뿐 아니라 남북의 폭도 극히 넓어 남북의 기온차도 현저하게 크다. 흑해 연안의 얄타 지방은 1월의 평균 기온이 3.7℃인 반면, 북쪽 끝의 첼류스킨 곶 지방은 더운 날이 거의 없다. 특히 베르호얀스크에서는 기온이 -67.8℃까지 내려간 일이 있어 북반구의 한극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대륙성 기후로서, 모스크바 부근은 겨울 평균기온 영하 10도, 여름 평균기온은 영상 16도에 이른다. 서쪽의 유럽 러시아 지역은 여름인 7월의 경우 등온선 분포는 거의 위도와 평행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북극해 도서지방은 0℃, 북극해안은 5~10℃, 시베리아 일대는 15℃ 전후, 유럽 러시아 지역은 20℃에 육박하는 기온분포를 보인다. 강수량 분포는 북위 60° 부근을 정점으로 하여 남북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서양 기단의 진로가 북위 60°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500mm 이하인 가운데, 유럽 러시아와 동 시베

리아에서는 500mm, 시베리아 중부 400mm, 북극해, 카스피해 부근에서는 250mm 이하의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우랄산맥에는 지형성 강우가 빈발하는 편이며, 지중해성 기후와 유사한 흑해 부근에서는 겨울 강우량이 많다. 또한 극동지역은 몬순성 강우가 많다.

◆ 지 리 : 러시아의 국경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현 독립 국가 연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성 공화국들과 동구 유럽 여러 나라 및 중동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마주하고 있다. 동경 19°, 서경 169.5°, 북위 44°~82° 사이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의 영역은 북동 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서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에 이른다. 서부 및 서시베리아는 평원지역이며, 동시베리아는 산악 지대를 이루며 중간의 우랄산맥을 제외하면 러시아의 지형은 남동쪽으로 험준한 산악지대가 발달하였고, 북서쪽으로는 광활한 평지가 펼쳐져 있어 흡사 커다란 반구형의 극장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지형적 특성에 따르면 러시아는 콜라-카렐리야 지역, 러시아 평원, 카프카스 지역, 우랄산맥, 서(西)시베리아 저지, 중앙 시베리아 고원, 남부 산악지대, 동부 산악지대로 구분된다. 콜라-카렐리야 지역은 핀란드 국경을 접한 유럽 러시아의 북서부 지역이다. 카렐리야 지역은 고원지형을 이루나 해발고도는 낮다. 대부분 200m 이하의 구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곳곳에 빙하호와 늪지가 발달하였다. 콜라반도에는 히비니산(1,191m)을 제외하고는 해발고도 300m 미만의 낮은 구릉이 발달하였다. 러시아 평원은 서쪽 국경선으로부터 동으로 우랄산맥까지, 북극해로부터 남으로 카프카스 지방과 카스피해까지 펼쳐진 대평원이다. 광활한 평원의 서쪽과 남쪽으로 발다이구릉, 스몰렌스크-모스크바고원, 중앙 러시아고원, 프레볼가고원 등 400m 미만의 저산지가 분포해 있다. 이 고원들 사이로 드네프르강, 돈강, 드비나강 등이 흐르면서 그

주위에 범람원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발다이 구릉은 해발고도 300m 내외의 빙하성 산지로서 불호프강, 드비나강, 불가강 등의 분수계 역할을 하고 있다. 카프카스 지역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쿠반저지와 쿠마저지 및 카스피해 연안저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북쪽으로 러시아평원과 연결된다. 특히 카스피해 연안은 해수면 이하(-27m)의 낮은 저지대이다. 쿠반저지와 쿠마저지 사이에는 평균 해발고도 400m의 스타브로폴고원이 있다. 한편 카프카스 지역 남단에는 험준한 카프카스산맥이 동서로 발달해 있어, 러시아와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국경선 역할을 한다. 우랄산맥은 북극해 연안에서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총 길이 약 2,080km의 습곡산맥으로 서 러시아평원과 서시베리아저지를 구분해주고 있다. 북쪽의 나로드나야산(1,894m)을 비롯해 해발고도 1,500m이 넘는 산은 소수이고 그 사이로 낮은 산들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랄산맥은 큰 교통장애 요소가 되지 못하며, 일찍부터 주요 교통로가 발달해 왔다. 서 시베리아저지는 우랄산맥에서 동쪽의 예니세이강까지, 북극해에서 남쪽 알타이산맥까지 펼쳐져 있는 광활한 지역이다. 이 저지는 오브강과 이르티슈강이 형성한 거대한 범람원으로서 늪지가 많다. 중앙 시베리아 고원은 예니세이강과 동쪽의 레나강 사이에 발달한 고원지대로서 대부분 해발고도 400~700 m의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니세이강과 레나강의 지류가 고원 사이로 흐르면서 골짜기를 이룬다. 중앙 시베리아 고원 북쪽으로는 비랑가산맥과 푸토란산맥이 있으며, 남쪽에는 바이칼리아 산맥이 있다. 이들 산맥은 비교적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에는 야쿠티아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남부 산악지대는 카자흐스탄의 동쪽 국경선에서 바이칼호에 이르는 지역으로, 알타이산맥, 동, 서 사얀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산맥들은 해발고도 2,700~4,200m의 험준한 산지로서, 정상부에서는 평탄한 고원을 이룬다. 또한 정상부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예니세

이, 오브, 이르티슈강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바이칼호는 단층작용으로 형성된 거대한 호수로 최대 수심이 1,616m에 이른다. 동부 산악지대는 동쪽의 바이칼호로부터 야블로노비산맥, 스타노보이산맥, 주그주르산맥, 콜리마산맥, 추코트 산맥으로 이 어져 베링해까지 연결된다. 한편 베르호얀스크 산맥과 체르스키산맥은 남북으로 뻗어 각각 주그주르산맥, 콜리마산맥과 만난다. 이 산맥들은 해발고도 2,000~3,000m 사이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대 유럽 지괴와 북아메리카 지괴가 충돌하면서 형성된 습곡산지이다. 한편 동부산악지대의 동쪽지역은 화산이 집중 분포해 있다. 특히 캄차카반도와 쿠릴열도는 활발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환태평양 화산지대의 일부이다.

< 모스크바 >

모스크바는 광대한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정치, 경제, 사상의 중심이던 곳이다. 현재는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정치 및 산업, 문화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들로 가는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모스크바 공항을 통해서 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모스크바는 1991년 이후 러시아의 수도로 러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제일 유명한 문화기관 및 극장, 영화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18세기에는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수공업과 상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러시아 혁명 후 다시 위치를 찾게 되었다. 역대 황제는 모스크바에서 대관식을 올리는 관례를 지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함께 러시아의 2대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모스크바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며,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도로의 길이는 109km에 이른다. 모스크바는 크렘린을

중심으로 하여, 맨 안쪽에는 볼바르노예 순환도로가 위치해 있고, 이 도로를 다시 사도보예 순환도로가 둘러싸고 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자동차 순환도로가 볼바르 순환도로와 사도보예 순환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었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마치 과녁판과 같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종종 모스크바를 '과녁도시'라고도 한다.

참고2 국가정보 : 우즈베키스탄 및 타슈켄트

< 우즈베키스탄 >

19세기 후반에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을 정복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군에 대한 저항이 완강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924년에 결국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소비에트 시대에 "하얀 금"(면화)과 곡물의 집중적인 생산으로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과 물 공급의 고갈을 가져와서 땅이 힘을 잃고 아랄 해와 몇몇 강들이 절반은 물이 마르게 되었다. 1991년 이후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은 광물 및 원유 부존자원을 개발하면서 농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관심사는 이슬람 투쟁적인 사람들의 테러, 경제 침체, 그리고 인권의 제한과 민주화 등이다.

- ◆ 위 치 : 중앙 아시아 중부
- ◆ 국 경 : 아프가니스탄 137 km, 카자흐스탄 2,203 km,
키르기스스탄 1,099 km, 타지키스탄 1,161 km,
투르크메니스탄 1,621 km
- ◆ 면 적 : 44만 7400km²(한반도의 2배: 스웨덴과 유사한 크기)
- ◆ 인 구 : 27,345,026 명 (2008.7. 추정)
- ◆ 인구밀도 : 62.6명/km²(2008 추정)
- ◆ 평균수명 : 71.69년 (2008 추정)
- ◆ 수 도 : 타슈켄트
- ◆ 정 체 : 대통령 중심 공화제 ISLOM KARIMOV (1990. 3~ 현재)
- ◆ 언 어 : 우즈베크어 74.3%, 러시아어 14.2%, 타지크어 4.4%, 기타 7.1%
- ◆ 통 화 : 쉘(CYM)
- ◆ 환 율 : 1,300쉘 = 1달러(2008. 12)
- ◆ 1인당 국민총생산 : 2,400달러 (2008년도 추정)

◆ 문 명 륜 : 1% 미만 (2003년도 추정)

◆ 독 립 일 : 1991년 9월 1일 (소련으로부터 독립)

정식명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이다. 수도는 타슈켄트이고 우즈베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구 소련을 구성했던 공화국으로, 현재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이다. 동쪽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은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한다. 북서 일부는 아랄해에 면한다. 지리·경제지역은 타슈켄트, 페르가나분지, 사마르칸트, 중부, 서부 및 남동부 등 6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키르기스스탄 내에 격리된 2개 지역이 있다. 행정구역은 1개 자치공화국과 12개의 주(州)로 되어 있다.

◆ 지 형 : 우즈베키스탄은 국토의 4/5가 저평한 저지로 북서부와 중앙부는 사막 초원지대, 남동부는 산지 및 분지이다. 북서부와 중앙부는 우스투르트대지, 아랄해 연안, 키질쿰사막, 아무다리아강 중·하류의 충적지 등을 포함하며 국토의 71%를 차지한다.

◆ 기 후 : 국토의 대부분이 대륙성기후지대로, 한서의 차가 심하고 연간 강수량이 적으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건조기후지대이다. 여름은 무더위 7월 평균기온이 북부는 26℃, 남부는 30℃이나 32℃ 이상인 지역도 있으며, 낮기온 40℃ 이상인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겨울은 남부의 경우 2개월 정도이며 북부는 5개월이나 된다. 1월 평균기온은 북부는 -8℃, 남동부는 3℃이다. 폭한이 빈번하며 북부에서는 최저기온이 -38℃ 이하인 날도 있다. 강수량은 평야지대에서는 80~90mm에 불과하나 남동부는 산지로 갈수록 증가하여 890~1,000mm나 된다.

◆ 민 족 : 우즈베키스탄은 125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다. 다수민족인 우즈베크인이 전체 인구 중 71.4%를 차지하고, 러시아인 8.3%, 타지크인 4.7%, 카자흐인 4.1%, 타타르인 2.4%, 카라칼팍인 2.1%, 타타르크리미아인 1.0%, 고려인(韓人) 약 15만명 및

키르키즈인 각 0.9% 등의 순이다. 카라칼팍공화국은 카라칼팍인 32.1%, 우즈베크인 32.8%, 카자흐인 26.3% 등이다.

◆ 정 치 :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12월 대통령중심의 민주공화제를 채택 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입법부는 단원제로 임기 5년인 2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회의(Oliy Majlis)가 담당한다. 각료회의는 총리, 8명의 부총리, 26개 부처장관, 24개 국가위원회의장, 8개 국가기관대표 및 카라칼팍자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사법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권은 이들 법원이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1994년 의회 선거결과 인민민주당(HDP) 69석, 조국진보당(VTP) 14석, 사회민주당(SDP) 47석, 지방정부 120석을 각각 차지하였으며, 이슬람부흥운동, 통일인민전선(Birlik), 민주개혁운동 등의 정치단체가 있다. 독립 후 집권 인민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억압조치를 증가시켰다. 종교정당의 정치집회는 금지되었으며, 1992년 통일인민전선은 불법화되었다. 평등, 호혜, 내정불간섭, 개방 등을 외교기본원칙으로 하고 100여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서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1992년 3월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5월 독립국가연합 5개국과 집단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8월 방위법이 제정되어 국방군이 조직되었으며, 군복무는 의무제로 복무기간은 12개월이다

◆ 대한민국과의 관계 : 1991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을 국가로 승인 후, 1992년 1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3년 12월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다. 1993년 6월과 1994년 6월 대통령의 교차방문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교류와 기술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및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98년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 되었다. 한국의 민간기업이 진

출해 있고, 양국 합작 가전제품 및 자동차공장이 건설되었다. 양국간 무역은 독립 후 급속히 신장하였다. 교역량이 1992년 368만 달러에서 2006년 6억 8,900만 달러로 격증하였다. 2006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와 그 부품, 철강제품, 통신기계, 전자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수입액은 6억 4,900만 달러이다. 수출은 목화, 아연괴, 소가죽 등 원료 및 반제품이 대부분이며 1억 4,200만 달러이다. 1937년 스탈린 통치하에 극동 연해주에서 강제이주한 고려인은 현재 28만 명 이상이며, 타슈켄트와 그 주위지역에 5만 명 이상 거주한다(2007년). 사르다르야주와 카라칼팍자치공화국 내에도 다수 거주하며 중서부지방에서는 도시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민족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으며 국가경제발전, 특히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 제 : 우즈베키스탄은 공산혁명 전까지 광물자원의 채굴을 제외하고 산업화가 미진했다. 1928~37년 경제개발기간에 소련의 여러 슬라브공화국으로부터 기술자가 들어오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지역으로부터 산업시설이 이전해 옴에 따라 산업화가 진전되었다.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섬유 및 식품가공업이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96년 현재 산업별 GDP 비율은 농업이 26%이며 공업은 27%, 서비스 분야가 47%이다. 경제성장은 1988년 이후 소련 공화국간 경제협력체제 붕괴로 인한 공화국간 교역량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부진하다. 2000년도에 들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했으나 2005년 안디잔 폭동 유혈 진압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잠시 주춤했고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2007년부터 다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 타슈켄트 >

타슈켄트 (우즈베크어, Tashkent)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다. 주민은 우즈베크인 37%, 러시아인 41%, 타타르인 7%, 우크라이나인 4%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제조업(농기·광산토목기·직물기·장치류)이 발달하고 있으며 대규모 면업(綿業) 콤비나트가 있다. 이슬람과 그리스 정교, 거기에 러시아 문화까지 혼합된 다양한 모습의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우트만 코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코란으로 간주된다. 6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살인된 칼리프, 칼리패터 라술 알라, 아미르 울 모메닌 하즈라트 시에드나 우트만 라지 알라후 탈하 안후의 피로 얼룩져있으며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로 가져왔으며, 러시아인들에 의해 전쟁 전리품으로 탈취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소재가 이동했다. 1989년 코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되돌아왔다.